

近世 大學의 형성과 그 沈滯

—大學의 社會史(2)—

李 光 周

(全州大 社會教育學科)

宗教改革은 근세 대학의 지도 이념이요 존재의 근거인 '철학하는 자유'의 길을 개척하였다. 그러나 近世 大學을 지배한 유용성의 원리나 교양교육이라는 지도 이념은 다같이 자치적인 학문 연구의 공동체라는 대학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17세기로 하여금 大學史上 유례 없는 침체기를 자초하게 하였다.

大學의 社會史

1. 中世 大學 성립과 새로운 知的 狀況
2. 近世 大學의 형성과 그 沈滯*
3. 베를린대학과 '學問의 自由'의 문제
4. 現代에서의 大學의 變革과 그 問題性

1. 近世의 知的 狀況과 大學

중세 대학의 성립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하였던 지난 날의 카톨릭적 학문 체계에 일대 변화를 초래하였거니와, 그 변화는 14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는 근세 속에서 전개된 여러 知的 운동—르네상스·환관 인쇄술의 발명·종교개혁 및 근대 과학의 대두—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확대되었다. 근대 문명을 준비하고 태동케 할 이

들 운동은 몇 가지 특징과 성과를 지녔으니 그것을 우리들은 휴머니즘과 국민 문화의 개화 및 지적 시민층의 출현으로써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여러 운동은 대학 교수의 운동이라고 일컬어지고 '철학하는 자유'를 대학의 새 지도 이념으로 내세운 종교개혁을 제외하면 대체로 대학 밖에서 대학인이 아닌 지적 엘리트 혹은 시민층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점에 있어 그것들은 대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희박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대학 문화 및 대학 사회에 미친 영향을 우리들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우선 14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피렌체를 비롯한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를 무대로 전개된 르네상스 운동에 대해 살펴 보자. 르네상스는 '문예부흥'이라는 호칭이 밝혀 주듯이 문자 그대로 지식인에 의한 학문과 예술의 운동이었다. 르네;

* 필자의 사정으로 제목의 변동이 있었음.

상스 시대를 프랑스의 역사가 루시앙 페브르는 '배우고자 하는 영웅적 狂氣'에 신들린 세기로 표현하였거니와, 이 시대와 더불어 비로소 지식과 교양이 富와 함께 혈통이나 가문을 제치고 사회적 스테이터스의 최상의 수단으로서 평가되고 더없는 개인의 존재 증명이 되었다. 단테가 '고귀함'의 개념을 출생이 아닌 윤리적·지적 우월성에서 찾고 그것을 철학의 자매로서 말하였음은, 바로 지식과 지식인에 대한 르네상스 사회의 일반적 심성을 표현하였다고 할 것이다. 17세기에 이르러 베이컨은 '아는 것은 힘'이라고 말하였거니와, '지적 재산'의 개념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미 정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고귀한 재산은 대학에서가 아니라 대학 밖에서도 도시의 지적 시민층에 의해 싹트고 개화되었으니 이러한 사정은 르네상스적 知로 하여금 대학의 專門 학식과는 다른 시민적·실천적 성격을 특징 짓게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의 대표적 지식인이었던 휴머니스트들의 人間像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휴머니스트들의 知와 교양은 폐쇄된 상아탑이나 서재가 아닌 도시의 한복판(forum)에서 시민들과의 대화나 토론을 통해 길들여지고 축적되었다. 그들은 말하자면 강한 시민 의식을 지닌 教養人이었던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知의 사회성을 잘 말하여 주는 것으로서 우리들은 또 당시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에서 특수한 위치를 차지한 '공증인(notario)'을 들 수 있으니, 그들은 시민 사회 최초의 직업적인 문필가였다.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연구자인 바론 교수는 휴머니스트가 '진정으로 시민'이 되었을 때 르네상스는 개화되었다고 말하였거니와, 시민적 휴머니즘은 독일의 경우에만 대학에 대해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을 뿐 프랑스나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각국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과 상류 시민층에 전파되었다. 그러나 휴머니즘의 '좋은 학예(bona literae)'는 서유럽 모든 대학의 교양학부(facultas artium)에 침투되었다. 휴머니즘의 형성이 대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나 15세기 후반에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16세기에 점차 일반화되기 시작한 '휴머니스트(humanist)'라는 말 자체가 이탈리아 대학의 학생 용어로부터 유래된 것으로서 고전

문학의 교수나 교사 및 학도를 원래 지칭하였던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15세기의 구텐베르크에 의한 활판 인쇄술의 발명에 대해 생각해 보자.

14, 15세기의 지리상의 발견과 여러 발명들은 유럽의 知의 지평을 크게 확대하였거니와, 여러 발명 중에서도 15세기의 활판 인쇄술의 발명은 특히 지적 상황에 충격적 영향을 주었다. 새로운 인쇄 기술은 그것이 알려지자 우후죽순처럼 과급되어 15세기 말경에는 유럽 여러 지역 3백여 개소에 1천을 넘는 인쇄 출판소가 생겨났다. 이 인쇄 출판소는 물론 대학과 적잖이 관련을 맺었다. 프랑스 최초의 인쇄 출판소는 1470년에 파리대학의 일각에 만들어지고, 거기에서는 2인의 파리대학 교수가 독일에서 온 3인의 활판 인쇄 기술자와 함께 일하였다. 15, 16세기를 통해 모든 인쇄소에서는 학자나 저술가가 筆匠 인쇄인으로서 출판업자 곁에서 교정을 맡아 보았다. 그들의 대다수는 휴머니스트들이었으며, 그들의 성공은 출판업의 뒷받침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았다. 중세 교육이 기억력에 의존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제 많은 책이 출판됨으로써 文獻批判學 시대가 개막되었다. 많은 출판 인쇄소가 대학내에 혹은 대학 가까이 자리잡고 거기에서는 대학 교재가 만들어졌다. 출판업은 인쇄술이 발명된 뒤 1세기 동안 엄청난 번영을 이룩하였으니, 이제 지식과 학문은 소수 특권층과 학식자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만민에게 개방되었다. 그리고 문자는 지난 날의 마술성에서 풀려나고 이성의 표상이 되었다. 책은 지식인의 존재 증명이 되고 새로운 타일의 문필가들이 배출되었으며, 인쇄 문화에 뿌리를 둔 근대적 교양과 지적 公衆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인쇄술의 발명은 특히 휴머니즘의 신장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였다. 즉 1500년 이전에는 인쇄 출판된 활자본(요람본, incunabula)의 45%가 종교 관계 서적이었고 55%가 대학 교재, 고대 그리스·라틴어 서적이었던데 반해, 16세기 중엽에는 고전이나 휴머니스트들의 저작이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출판 부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어 1500년 이전에는 1권당 200

부 내지 500부였던 것이 16세기에는 1,000부에서 2,000부를 헤아렸다. 16세기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에라스무스의 「치우신예찬」 초판본(1511년)은 1,800부가 곧 매진되고 이어서 2판, 3판이 서유럽 여러 도시에서 출판되어 베스트셀러의 평을 높였다. 루터의 독일어譯 성서의 초판은 4,000부였으며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의 초판은 1,500부였다. 그런데 14~16세기에 있어 서적의 초판은 대체로 왕후나 귀족의 페트론(patron)의 도움을 받아 햇빛을 보게 되어 그것들은 그 페트론에 대한 헌정본의 형태를 취하였다. 활판 인쇄술은 도서관과 장서 및 서재를 낳았다. 이탈리아에서는 왕후와 더불어 휴머니스트들이 자신의 장서로써 도서관을 꾸미고 일반에게 공개하였다. 그 좋은 예를 우리들은 페트라르카와 보카치오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점차 부유한 시민층도 자기들의 장서와 서재를 갖게 된다. 도시 귀족층의 장서는 대체로 법률 서적과 휴머니스트들의 저작으로 메꾸어졌다. 印稅 제도가 생겨나는 것은 17세기 중엽을 지나서였으며 딜턴이 그의 「실락원」 원고를 5 파운드로 매각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인쇄를 받은 것은 1667년 4월 27일로 기록된다. 그때 출판업자는 시인에게 초판 1,300부가 매진될 경우 다시 5 파운드를 지불하고, 2판과 3판이 매진될 경우에도 같은 액수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다.

인쇄 출판의 工房이 상업자본주의의 물결을 타고 단시일내에 기업으로서 활기를 띠었다고는 하나 거의 중세적인 수공업의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리고 13세기말부터 성직자나 귀족과 더불어 법조인, 상급 관리 및 부유한 상인층에 의해 새 독자층이 형성되고, 종교 서적 이외에 법률, 정치, 과학, 수양 및 문예 서적 등 다양하게 많은 서적들이 간행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지식과 서적은 일반 서민층과는 전혀 무관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16세기말에 있어 자기 이름을 서명할 수 있는 부부가 겨우 13%에 지나지 않았으며, 17세기말에 이르러서도 21%를 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서도 뚜렷하다. 광범위한 독자층의 부재 현상은 당연히 문필가들의 사회적 지위에도 영향을 주어 라틴어가 아닌 자기 나라 말, 즉 ‘俗語’로써 저술을 한 시인이나 작

가들은 더우기 낮은 사회적 신분을 면치 못하였다.

이상에서 우리들은 르네상스 운동과 활판 인쇄술이 물고 온 유럽 지식 사회의 새로운 상황을 살피 보았거니와, 이제 직접적으로 근대적 대학의 출현에 큰 영향을 준 종교개혁과 대학의 관계에 관해 생각해 보자.

2. 종교개혁과 독일 領邦大學

성서 중심 주의와 함께 프로테스탄티즘의 원리가 되었던 萬人司祭主義, 즉 ‘개인이 직접 신과 진리와 마주 한다’라고 하는 루터의 사상은 “카톨릭의 도그마만이 진리이다”라고 주장하여 철학적 사유를 도그마의 시너로 묶어 두었던 교회의 절대권을 파괴하여 개인에 의한 주체적 지적 탐구의 길을 열었다. 이 점에 있어 종교개혁은 근세 대학의 지도 이념이요 존재의 근거인 ‘철학하는 자유(libertas philosophandi)’의 길을 개척하였다. 종교개혁은 이렇듯 유일 교회의 지배로부터 인간적 사유의 자유를 분명히 해방하였으나, 반면에 종교개혁의 결과인 독일에서의 영방교회(Landeskirche)의 출현은 독일 대학으로 하여금 영방 군주의 ‘정신적 친위대’로 만들게 하였다.

종교개혁에 있어 루터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였던 작센의 選帝侯 모리츠는 1538년 스스로 교회 首長임을 선언하여, 이에 루터파에 의한 영방교회 제도가 성립되었다. 이후 영방 군주는 자기 영내의 교회를 지배하였으니 대학도 또한 전적으로 군주의 관할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세 대학의 자치적 성격은 독일에 있어 일찍부터 구조적으로 붕괴되었다.

원래 1348년 황제 칼 IV세가 프라그에 독일 최초의 대학을 창설하였을 때 이탈리아에는 15개, 프랑스에는 8개, 스페인에는 6개 그리고 영국에는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등 2개의 대학이 이미 존재하였다. 그런데 독일 대학은 볼로냐나 파리의 대학이 장기간에 걸친 교권 및 속권에 대한 어려운 투쟁의 결과로서 얻어진 대학의 자치권을 아무런 저항도 겪지 않고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러한 독일 대학의 전통은 대학의

領邦 예속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대학의 국가 예속화를 더욱 촉진한 것은 종교 개혁에 의한 교회 재산의 몰수 및 화폐 경제의 진전이었다. 그 결과 대학 자치의 기초인 재정적 독립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고, 대학은 재정적으로도 권력자에 의지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들은 루터의 대학관과 프로테스탄트 계열의 대학 학풍의 핵심을 이룬 멜란히턴(melanchton, 1497~1560)의 대학교육관에 관해 살펴 보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당시 敎區 성직자의 무지와 부패는 극에 달하여 많은 교구에서는 장인이나 농부가 代役을 맡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십계명도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무지하였다. 그리고 품행 또한 분란하였다. 예들 들어 1529년 루터의 절대적 후원자였던 작센 選帝侯 영내의 목사 154인 중 성직에 적합한 자는 94인에 지나지 않았다. 마이센 교구에서는 만족할 만한 목사가 25%였고 37%가 그런대로 평가되고 11%가 미숙하며 21%가 전혀 무적격자로 낙인찍혔다. 루터가 저술한 「교의문답서」는 민중을 위한 것이기에 앞서 그들 소양이 부족한 성직자를 위한 안내서로서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양상은 루터로 하여금 성직자의 재교육과 양성을 시급한 과제로 착수케 하였다. 그리하여 프로테스탄트 세계의 새로운 목자와 교사를 양성하는 사명이 대학에 요청되고 그 결과 신교 계열의 많은 대학이 독일에 속속 창건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세속 권력도 또한 그의 절대주의를 위해 문서관, 서기, 법관, 변호사, 공증인 등이 시급히 요구되어 대학 건설을 서둘리게 되었다. 루터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하거니와 면학하는 데 지금보다도 더 좋은 기회는 없다. 이제 학문과 예술은 풍요하게 염가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큰 지혜와 명예가 그에 수반하고 있다.”

루터는 「독일 국민의 그리스도교 귀족에 선향」(1520)에서 대학 개혁에 관한 그의 플랜을 밝히고 있거니와 그 주요 내용은 낡은 대학의 전통을 부정하고 그리스도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인간의 형성과 더불어 만인 사제의 원칙이 강조되

었다. 새로운 대학교육의 지도적 인물은 루터의 충실한 협력자였던 인문주의자인 멜란히턴이었다. 그에 의해 인문주의적 문헌학과 스콜라 철학의 연구가 대학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고전학의 올바른 학습과 고전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문헌학의 대두가 1520년경 대학에서 우세한 학풍이 된 휴머니즘의 조류와 깊은 관계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휴머니즘의 학풍과 관련하여 새로운 교양의 형성에 있어 큰 역할을 한 것은 김나지움(Gymnasium)의 존재이다. 독일 교육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이 人文中·高等學校의 창건에 중심적 역할을 한 것도 멜란히턴이었다. 김나지움과 대학 철학부(교양학부)의 교육 목적은 ‘경건함’, ‘지식’ 및 ‘옹변’이었다. ‘진정한 지식을 추구하는 용기를 갖자’고 멜란히턴이 내세운 이 모토는 스콜라 철학의 도구과로부터 벗어나서 知的 정신의 자유를 지향하는 휴머니즘에 근거한 고등교육의 새로운 이념의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프로테스탄티즘과 휴머니즘의 조화, 양심과 지식의 일치 속에 진정한 敎養理想을 찾은 이 ‘독일의 교사(praeceptes Germaniae)’가 설정한 교육 이념은 18세기말까지 독일의 교육과 학문의 일관된 교육 목표가 되었다.

이제 우리들은 비텐베르크대학을 중심으로 루터주의적 영방대학이 지닌 문제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루터가 오랜 교수 생활을 보낸 비텐베르크는 독일 중앙부에 위치한 종교개혁의 진원지였으며, 프로테스탄트 개혁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다하였다. 대학 특허장을 로마 교황이 아닌 황제 맥시밀리언 I 세로부터 부여받아, 종교개혁 당시 프로테스탄트계의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 비텐베르크대학은 또 한편에 있어 작센 선제후 지배하의 전형적인 영방대학(Landesuniversität)이었다. 1533년 창립 당시 등대학에는 16인의 교수와 400인의 학생이 재적되어 있었다. 신학부는 새로운 학칙이 멜란히턴에 의해 기초되고 그것은 영주 이름으로 선포되었다.

신학은 증세와 같이 철학을 기초학으로 하지 않고, 성서에 관한 언어학적·해석학적 연구를 기초로 하였다. 신학부는 종래의 교수 3인 외에

市 교회의 설교사가 새로 부임하여 강좌를 신설하였다. 휴머니즘에 관한 정규 강의는 없었으나 知的 강의는 허용되었다. 그러나 1567년 이후에는 정식으로 인문주의의 강좌가 설정되었다. 신학부 학위는 성서에 관해 6년간 정규 강의를 들어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강의 내용은 성서와 아우구스티누스에 집중되었다. 지난 날과는 달리 철학부의 학위가 없어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1536년에 만들어진 새 학칙에 의해 법학부에서는 4인의 교수가 교회법과 시민법을 강의하였다. 의학부에서는 종래처럼 그리스·아랍의 의학 서적을 강의하는 2인의 교수 외에 새로이 해부학 강좌가 설정되었다. 이것은 유럽에서도 선구적 시도였다. 교양학부는 오늘날에 독일 대학에서처럼 철학부로 개칭되고 멜란히톤을 비롯한 11인의 교수가 히브리어, 그리스어, 문법, 시학, 변증법, 수사학, 초등수학, 고등수학, 자연학 및 도덕철학을 강의하였다. 11번째 교수는 예과(pädagogium) 학생들을 지도하였는데, 예과는 종래 멜란히톤이 사적으로 지도한 것을 공식 과정으로 한 것으로서 라틴어의 어학력이 약한 신입생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이 예과 제도는 신교계 대학의 하나의 특징이 된다. 학생들은 강의 이외에 토론회와 연설회에 참가해야 했는데, 전자는 중세 이래 존속된 것이며 후자는 멜란히톤이 수사학의 실지 연습을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 그 밖에 비텐베르크대학을 위시하여 신교계 대학에 있어서는 교수의 대우가 향상되고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제 우리들은 영방대학으로서의 비텐베르크 대학이 지닌 문제성에 관해 생각해 보자.

대학은 자치적 성격이 뚜렷했던 중세에서도 세속 권력이 탐을 낸 대상이었거니와 16세기 이후의 절대주의적 세속 권력은 대학을 판로 조직의 확보 및 지배권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상의 기구로서 간주하게 된다. 그리하여 국가 권력은 대학의 지배를 과거와는 다른 리얼한 권력 정책의 차원에서 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16세기 이후 강력한 군주들은 요새를 쌓아 올렸듯이 서로 다투어 대학을 창건하고 그것을 그의 권한하에 두고자 시도하였다. 독일

영방대학의 경우 군주 혹은 국가의 권력은 대학의 조직과 교수의 인사권 그리고 강의의 내용과 교과서의 사정 접얼까지도 감독하였다. 루터와 멜란히톤은 제후나 도시에 대한 대학 교수의 자문 의무를 과한 바 있거니와 이것은 곧 국가 권력에 대한 대학의 종속 관계를 초래하였다. 비텐베르크에서는 선제후의 궁전과 대학은 밀접한 관계를 취함으로써 대학의 권력 지배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즉 신학부의 교수와 학생은 궁전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하였으며, 법학부의 교수는 궁전 고문관을 겸임하고, 의학부 교수는 侍醫로서 봉사하였다. 그러나 보다 더 문제적이었던 것은 영방 군주가 교회 수장이 된 결과, 대학이 종무 행정의 기관으로 화한 점이다. 비텐베르크에서는 이미 1535년 이래 군주의 명령에 의해 성직자 후보생은 대학에서 그의 능력과 인격에 관해 심사를 받게 되고 1537년에는 대학내에 宗務局이 설치되어 도그마에 관한 성직자의 인사·결혼 문제를 둘러싼 분쟁, 교회 재판의 관리 등 최고 법정으로서의 기능과 성직자 사생활의 감독까지도 관장하게 되었다. 그 宗務 관계에는 신학부와 법학부의 교수가 종사하였으며 그에 대해서는 직접 군주로부터 일정한 특별 수당이 지급되었다(루터 교수는 죽을 때까지 그 일들을 총괄 주재하였다). 실로 이 종무 관계를 통해 대학과 대학인은 군주 권력의 '정신적 친위대'로서 둔감되었던 것이다.

비텐베르크대학은 종교개혁 뒤에 독일 각지에 신설된 많은 신교계 대학의 모델이 되었으며 여러 지역에서 학생이 물려왔다. 그리하여 1540년 이후 20년 동안 거의 배해 400인 이상의 학생이 입학하고 때로는 800명이 입학한 해도 있었다. 이 수자는 당시로서는 유례 없는 큰 규모의 학생 수라고 할 것이다.

영방대학의 등장은 독일 대학으로 하여금 이중의 의미에서 군주 내지 국가 권력에 의존케 하였다. 즉 한편으로는 영방의 주권자로서의 군주에 예속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대학 자체의 설립자로서의 군주에게 의존케 하였던 것이다. 대학은 독일에 있어 이제 국가대학(Staatsuniversität)이 되었으며 교수는 국가에 의해 임명되고 봉급을 지급받는 국가 관리의 일원이 되었다.

1530년에 마련된 비텐베르크대학의 법규는 대학의 관료적 위계 질서를 확립한 국가대학의 제1보통 규정이었다. 이제 국가 주권은 대학에 대한 여러 법규를 정하고 교수들은 그 위임과 감독을 받는 국가 관리가 되고 학생들 또한 국가의 미래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교육을 받는다.

대학의 국가 예속화는 대학 사회를 넘어서서 아카데미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한 독일 지식 사회 일반의 국가 권력에 대한 종속성과 의존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작용하였으니, 이 모든 것이 필경은 독일의 후진성과 깊은 관련이 있었음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영국과 프랑스의 대학

대학의 국가 예속화는 독일에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었다. 프랑스나 영국에 있어서도 근세에 이르러 그 차원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자치는 퇴색되고 국가 의존의 경향이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날 학생과 교수의 자치적인 공동체로서 훌륭한 모범을 진 유럽에 자랑하였던 파리대학도 14세기에 이르러서는 국가와의 권력 관계가 점차 애매해졌다. 들른 근세에 있어서도 파리대학은 로마 교황과 프랑스 국왕간의 중계적 역할을 통해 국가와 교회에 대하여 적잖이 자주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자주성은 파리대학의 폐쇄성이나 독선적 성격과 포리를 이룬 결과 새로운 인문주의 사조나 종교개혁에 맞서기도 하고, 17세기에 이르러서는 데카르트적 합리주의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파리대학은 근세에 들어와서도 그 이념과 조직에 있어 구태의연한 스킨라적 학풍을 고집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신학부는 여전히 정신과학을 독점하고, 법학부는 교회법 연구에만 급급하였으며, 의학부 또한 자연과학의 새로운 동향을 완고하게 거부하였다. 역사의 발전을 의면한 파리대학의 보수주의는 프랑스혁명 시대에까지 이어져 프랑스의 대학들은 독일대학과는 달리 중세 스킨라주의를 고집하면서 새로운 사조나 근대적 정신과학, 자연과학 및 기타 여러 과학에 대해 대체로 적대 관계에 섰다. 그리하여 학문 연구는 대학 밖에서 대학인이 아닌 人士들에 의해 이루어졌

으니 근세에 있어 프랑스의 학술 진흥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아카데미 프랑세즈였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의 경우에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옥스-브리지대학은 15세기초의 교회와의 투쟁을 마지막으로 점차 가치와 자유의 정신을 잃어가고 교회와 왕국의 충실한 동반자가 되어 갔다. 명예혁명(1688년)은 본래 중세적 전통을 지닌 자치적 공동체—교회, 의회, 지방 단체, 길드 등—의 특권을 그대로 존속하였거니와 대학도 그것의 일종으로서 동일한 차원의 자급성과 특권을 지닐 수 있었다. 그리고 옥스-브리지를 비롯한 영국의 대학은 막대한 기본 재산을 소유함으로써 자치의 재정적 기반을 또한 굳힐 수 있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시민혁명 뒤 영국을 지배한 지배 계층과 대학인간에 계급적 동질성이 이루어진 사실이다. 즉 옥스-브리지는 상류층인 젠트리(紳士)의 자제와 성직 지망생들을 교육하였으며, 이들이 바로 당시의 영국 지배 계급을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지배 계급이 대학을 침해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었으며 대학은 자치와 자주성을 향유하였다.

이상과 같이 대학이 정치적으로 학외 권력과 기본적인 이해의 대립을 지니지 않고, 재정적으로 학외에 의존치 않으며 조직적으로 거의 완전한 자치를 유지한 경우에는 대학인이 개인으로서의 시민적 자유를 보장받으면 그것으로써 학문 연구의 자유, 즉 대학의 자유는 동시에 실현되는 것으로서 대학이 그의 '특별한 자유'를 주장할 필요성도 필연성도 없었던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종교적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적 자유를 달성함으로써 동시에 연구의 자유가 실현되고 따로이 대학과 대학인의 '특별한' 자유를 요구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들은 영국 대학의 특성을 이루는 컬리지(college) 제도에 대하여 살펴 보자. 컬리지는 원래 독지가가 가난한 학생을 위한 후생 시설로서 만든 학생 기숙사였다. 13세기 이래 발달한 컬리지는 14세기에 들어오면서 유력한 주교나 대주교가 연이어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 컬리지를 설립하였다. 그 목적은 성직자를 희망하는 가난한 학생을 위한 學校로서 학생들을 무료로 入學시키기 위함이었다. 14세기경의 양 대

학의 급비생 수는 10명 내외로서 입료 학생은 전체 학생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15세기에 이르러 켈리지는 단순한 기숙사가 아니라 거기에서 독자적인 교육(처음에는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기초 교육을 하였다)을 하게 되어 오늘날과 같은 기숙제 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리고 기숙생도 가난한 급비생 이외에 자비로 입학한 학생들(commoner)도 더욱 생겨나고 점차 켈리지는 상류층 자제들의 신사 교육을 위한 시설이 되었다. 종교개혁 이후 켈리지 제도는 더욱더 그 기반을 굳히고, 개별적 지도교사(Tutor)제의 확립과 자급생(commoner)의 증가로 말미암아 대학은 상층 계급의 교양기관화하였으며, 명예 혁명 이후의 정치적 안정은 켈리지 제도에 기반을 둔 영국 대학의 특징을 정착시켰다. 그런데 옥스-브리지에 의한 신사 양성이라는 전인적 교육 목표는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영국에서도 신학문은 왕립과학협회(Royal Society)와 같은 대학이 아닌 학술 기구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4. 學生과 教授의 實像

이제 우리들은 근세 유럽 대학이 놓여 있던 문화적·사회적 상황의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당시 學生像과 教授像에 관해 생각해 보자.

15세기말 유럽에는 80개가 넘는 대학이 각국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었다. 이것은 중세 대학이 파리대학에서 볼 수 있듯이, 교수가 학생들이 유럽 여러 나라에서부터 모여 들어 국제적 성격이 짙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학의 국민적(민족적) 성격 내지 지방성을 점차 드러내게 하였다. 그리하여 대학의 인가(특허장)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난 날과는 달리 황제나 국왕 또 독일의 영방대학 중에는 영방 군주로부터 받아 대학 설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당연히 코스모폴리타니즘적이었던 중세 대학 이념의 퇴색과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초래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530년 경부터 점차 나타난 라틴어(이 古典語는 16세기 중엽 이전에 있어 유럽 대학 사회 내지 지식 사회의 유일한 언어였다)의 퇴보

와 '俗語'로서 천시되었던 自國語의 절진적 사용에서도 반영되었다. 종교개혁자는 특히 자국어 사용하는데 의식적이었고, 휴머니스트들도 또한 독자를 얻기 위해 라틴어와 자국어를 병용하였다. 「俗語論」(1302~5년)을 저술한 단테도 그의 「神曲」(1304년)을 이탈리아어로써 저술했으니 그것은 국민 문화의 도래를 상징한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대학의 국민화·지방화는 국민 국가와 국민 문화의 대두와 포리를 이루거니와 한편에 있어 그것은 학생 수의 증대 및 학생과 교수의 자질의 저하를 초래하는 등 大學人像에도 적지 않은 수정을 가하였다.

이제 우리들은 당시의 대학 학생 수와 그들의 출신 계층에 관해 살펴 보자.

종교개혁 당시 신교 지역에 있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특히 멜란히톤의 인문주의 교육과 루터의 성서 강의를 통해 독일 지식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비텐베르크대학의 경우, 16세기 중엽 이후 학생 수가 점차 증가되어 1525~28년에는 신입생 수가 256명이었고, 1540~45년 경에는 실로 3,000명의 학생이 재적하였다. 그 중에는 많은 귀족 출신 학생도 포함되었다. 당시 동대학의 매년 입학자 수를 추적해 보면 1520년에는 579명, 21년에는 552명, 22년에는 245명, 23년에는 285명, 24년에는 197명, 25년에는 144명, 26년에는 121명 그리고 한 때 600명을 넘었던 멜란히톤의 수강생은 1524년에는 겨우 4명 밖에 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학생 수의 심한 변동은 루터의 제국 추방(1521년)을 비롯한 종교개혁의 추이와 깊은 관계가 있다. 종교개혁 당시의 학생 수의 증감은 카톨릭제의 타이프지히, 켈른 및 비인대학 등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 한 때 교수 수보다도 학생 수가 적은 때도 있었다. 그만큼 신학부 중심의 당시의 대학은 특히 종교의 동향에 민감하였던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눈을 영국에 돌려 캠브리지대학의 예를 들어 학생의 사회적 출신 계층에 관해 알아 보자.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옥스-브리지는 대체로 귀족과 부유한 시민층 자제의 교양 교육기관으로서 발전되었거니와 17세기 중엽 이전에 이미 영국의 중산 계층은 고등교육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그들의 자제들도 옥스-브리지에 진학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우(옥스포드에 있어서도 유사하였음) 1560~1630년간에는 이미 중산층 자제들이 켈트리 계층 출신과 책상을 나란히 하였다. 1580~1630년간에 걸쳐 케임브리지의 카이우스(caius) 컬리지 신입생의 사회적 출신 신분은 <표 1>과 같다.

<표 1> 1580~1630년 사이의 케임브리지 카이우스 컬리지 신입생의 사회적 출신 (단위: %)

연도	계층	신사	성직자 및 문직	상인 및 역업자	소지주 및 농부	주 소상인	기타
1580~89년		35	5	6	11	31	12
1600~09년		43	18	7	10	12	10
1620~29년		43	19	23	7	1	7

1630~35년간 210명의 신입생의 52%는 신사 계층 출신으로 기록된다. 그들의 2/3는 (1622~24년) 다른 계급 출신과 마찬가지로 장학생과 급비생이었으며 그들도 또한 대부분이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편 독일 학생의 출신 성분은 파웅젠 교수에 의하면, 두 가지 종류의 학생 집단이 존재하였다. 즉 법학, 정치학을 전공하여 세속적인 직업에 종사할 학생과 신학 혹은 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 집단이 그것이다. 전자의 대다수가 상류 사회 출신인데 반해, 후자는 대개가 서민 사회 출신이었다. 법학부 출신자는 사법 혹은 행정기관에 진출하고 신학부 출신자는 대당의 성직을 맡을 때까지 귀족이나 부유한 가정의 개인 교수나 가정 교사 혹은 라틴어 학교의 교사로서 어려운 생계를 꾸려 나갔다. 독일 및 유럽 전역에 걸쳐 대학 출신자의 진로는 그들의 출신 계급과 깊은 관계가 있었으며, 기회 균등이란 당시에 있어서는 전혀 바랄 수 없었다.

대학 출신의 법률가 및 역사의 높은 사회적 지위에 비해 목사나 특히 학교 교사의 지위는 대단히 낮았다. 하부 학부인 철학부 출신자의 대다수는 '성직 후보자(Kandidaten)'로서 일컬어진 교사가 되었다. 교직은 아직도 독립된 직업

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으며 그것은 성적에 이르는 전단계이거나 그 예측으로 인식되었다. 18세기 중엽 이전에 이르기까지 학교는 교회의 현관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학생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

초·중등교육에 이은 고등교육이라는 오늘날과 같은 교육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근세에 있어 대학생의 연령이나 학력차는 실로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에메하고 불균등하였다. 철학부의 경우 9세 정도의 학생들도 허다하였으며 학력 또한 저질이 많았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영국의 컬리지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위탁하였으며 질리는 바로 교사 그 개인 속에 존재한다는 심성을 지니고 교사의 인격이 곧 학생들의 거울이 되었다. 그리하여 교수와 학생 관계에는 카리스마적 원리가 작용하고 마이스타적 지도와 복종의 심리가 지배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교수의 학문이나 인격도 개인에 따라 그 차이가 심하였다는 사실이다. 학생들은 중세와 마찬가지로 독특한 복장을 착용하고, 대학내에서는 물론 거리에서도 라틴어 이외의 다른 '속어'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 당하였다. 그만큼 대학 공동체는 폐쇄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폐쇄성은 패턴적이고 편협한 대학인의 기질을 조성하는 동시에, 한편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방종한 생활과 퇴폐에 물들게 하였다. 루터는 그의 만년에 학생들의 난폭한 행동을 개탄하였거니와 폭력과 酒亂 그리고 성적 방종은 당시의 학생 생활에 일반적인 악덕이었다. 이러한 문란한 학생 생활의 배경에는 학생들간에 개재하였던 빈부의 심한 차이도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교수들의 실상은 어떠하였던가.

영국의 作家 초오서는 그의 「켄터베리 이야기」에서 두 가지 유형의 학자를 묘사하고 있다. 하나는 옥스포드의 목사이며 또 하나는 옥스포드의 학생이다. 전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그는 진지한 눈매를 하고 있었다. 그가 입은 외투는 허름하였다. 그는 교회에서 좋은 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세상 물정에 어두웠으므로 세속적인 일자리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침대 곁에 값비싼 옷이나 바이올린, 현악기보다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붉고 검은 책을 20권 가량 놓아 두는 것을 즐겨 하였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연구(study)였다. 사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가 하는 말은 엄밀하고 지나치게 정중하며 말이 적고 요점을 이야기할 뿐 학문에 관해서는 오만하였다. 도덕적 미덕이 그의 이야기에는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는 기쁨으로 배우고 기쁘게 가르쳤다.”

여기에는 학문에만 몰두하는 학자상이 그려져 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연구’이다. 그런데 이러한 학자상은 바로 옥스포드와 같은 대학이 새로이 낳은 인간상으로서 대학이 성립되기 이전에 수도원에서는 이러한 인간상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모든 대학인이 이러한 모습을 지녔던 것은 아니다. 초오서는 또 다른 유형의 학도를 그리고 있다. 그 또한 옥스포드의 인물이다.

“얼마 전 옥스포드의 한 부자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방을 세 놓고 있었는데 방을 빌린 사람은 가난한 학생으로서 예술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학생의 관심은 천문학과 점을 치는 데 있었다. 이 젊은이는 ‘덧쟁이 니콜라스’라고 불리우고, 남 몰래 여성을 유혹하는 것이 특기였다. 그는 그의 향기 좋은 풀이나 과일로서 장식하고, 그 자신은 더욱 감미로운 향기를 풍겼다. 이 매혹적인 학생은 자기의 시간과 친구들이 보내준 돈을 일상적인 생활에 소비하였다.”

이 학생은 앞의 학자와는 지극히 대조적인 속된 인상을 풍긴다. 그런데 대학 사회에는 이상반된 두 가지 유형의 학생과 교수들로 메워졌다.

당시의 교사 일반의 출신 성분을 살펴 보면 독일 북부 튀빙겐 지역(4개 도시, 46개 읍, 마을의 총 인구 23,167인 중에서 교사의 수는 72인)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즉 교사 계층 출신 24인, 관리·중전 관리 계층 10인, 목사 계층 2인, 장인 계층 16인, 농민 계층 3인, 노무자 계층 3인, 기타 10인 등.

초·중등 교사의 수입은 일당 노무자의 그것과 비슷하였다. 물론 대학 교수 경우에는 그 출신 계층이나 사회적 지위 및 수입에 있어서 이들 교사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신학부 교수의 경우 고위 성직자 출신이 적지 않았으며 법학부나 의학부 교수들도 중류 계층 이상의 출신이 많았다. 그러나 철학부 교수는 대체로 서민 계층 출신이

었다. 당시의 교수들도 적잖이 교사답지 못한 생활에 잠염되고 있었다. 많은 교수들이 개인 교사로서의 감독을 학부모나 학장으로부터 위촉받고, 귀족이나 부유층의 학생들에게 방을 빌려주고는 보수를 받았다. 1614년의 어느 검열 조서는 酒稅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교수들의 주점 경영에 관해 적발하고 있다. 철학부를 제외한 다른 학부 교수들은 비교적 높은 사회적 존경과 수입을 얻을 수가 있었다. 즉 신학부 교수의 경우 교구 감독, 주임 사제를 겸무하고 때로는 國事에도 깊숙이 관여하였으며, 법학부 교수는 군주의 고문관·재판관·변호사 등을 지내고, 의학부 교수는 신분이 높은 인사들의 주치의로서 명성을 얻고, 오히려 대학 강의를 부업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5. 대학의 沈滯

근세 대학은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학문 연구를 위한 학생과 교수의 자유로운 자치적 공동체라는 지난 날의 성격을 상실하고, 국가 내지 절대주의적 왕권을 위한 有用性을 강조하는 교육기관으로서(독일 대학), 혹은 상류 계층의 전인적 교양교육을 위해(영국), 그 특성이 점점적으로 뿌리를 내렸다. 이러한 근세 대학의 성격은 중세와 근대 사이에 놓인 근세의 전환기적 성격을 반영하여 그 내부에 중세적 遺風과 근대적 성격이 애매하게 混在하여 프랑스 대학의 경우처럼 스콜라 주의의 학풍이 그대로 뿌리 깊게 도사려 새로운 근대 정신과 근대적 학문을 완강히 거부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사상의 자유라는 근대적 정신을 지향하는 ‘철학하는 자유’의 나무가 대학 캠퍼스에서 청청하게 싹틔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글에서 상세히 논하겠거니와, 근세 대학을 지배한 유용성의 원리나 교양교육이라는 지도 이념이 다같이 자치적인 학문 연구의 공동체라는 대학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17세기로 하여금 大學史上 유례 없는 침체기를 자초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의 경우 루터가 사망하고(1546년), 멜란히톤이 별세한(1560년) 뒤 신교계의 대학은 신교

운동과 더불어 날로 경직되고 30년 전쟁(1618~48년)으로 인한 재정적 기반의 상실은 학문 영역의 확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강좌의 신설을 불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교수가 전공 이외의 강의도 맡게 되어 대학의 강의 수준은 김나지움의 그것과 구별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대학에서도 다름이 없었으니 대학은 '영터리' 학위를 수여

하는 곳으로서 세인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학문 연구의 중심은 아카데미로 옮겨지고, 또 한편 많은 지역에 국가 정책에 의해 유용성을 모토로 하는 '전문' 직업 학교가 설립되었다. 그 결과 대학은 더욱더 국가 권력에 의해 관리되고 예속되었으니, 이러한 대학의 위기를 구제하는 데 획기적인 기여를 한 것은 1810년의 베를린대학의 창설이었다(다음 호 계속). *

〈大學教授招聘情報室 등록 안내〉

大學教授가 되고자 희망하는 고급 인력에 관한 情報와 資料를 확보하여 專任教授를 초빙하려는 會員大學에 관련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 협의회 大學教授招聘情報室은 아래와 같이 대학 교수 희망자의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1. 登錄對象

전국 4년제 대학 專任講師 이상의 教授資格要件을 구비하신 분(단, 회원대학의 現職教授는 제외됨)

2. 登錄方法

본 협의회에 소정양식 "教授資源人事記錄카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3. 登錄時期

年中 계속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4. 接受處

①⑤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사학연금회관 503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내 대학교수초빙정보실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783-3065, 3067, 3068, 3891)